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② ; 순천 기적의 도서관 개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공동대표 도정일, 이하 책읽는사회)’ 과 MBC ‘!느낌표’ 제작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의 첫번째 가시적인 성과인 순천시에 위치한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11월 10일(월) 개관했다.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지구에 위치한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2층으로 1,270여평 부지에 건축 연면적 394평 규모로 지어졌으며 영유아 휴게실, 유아열람실, 어린이 전용 화장실, 가족방 등을 갖추고 어린이 도서를 중심으로 10,000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특히 만1세 안팎 유아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했던 기존 도서관과는 달리 어린 독자도 이용할 수 있고 모서리를 둥글게 굴린 어린이 전용 가구와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점자 도서 등도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 공사비는 시민 단체와 방송사, 순천시, 시민들과 중소기업이 후원하였다.

1층 열람실은 유아 및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마루방 형태의 자료실로 각 방과 내부 동선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독서문화체험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아이와 엄마가 집안에서처럼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아그들 방’과 ‘아빠랑 아기랑 방’, 자원봉사자들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방’, 수면실인 ‘코~하는 방’ 등이 둥근 동선으로 연결돼 있어 편안함을 준다.

방안 가득 어린 아이들이 뒤엉켜 책을 볼 수 있는 ‘책나라 방’과 놀이공간인 ‘모여서 놀아요’, 소규모 공연장인 ‘마당 도서관’ 등 놀이교육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1층 서가 주변에 심어 놓은 대나무가 2층 천장을 뚫고 옥상까지 뻗어나가도록 자연 친화적으로 내부를 설계해 어

린이들의 창의성 함양을 상징하고 있다.

2층은 고학년 초등학생을 위한 자료열람실이며,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 자료실이다. 어린이들이 인터넷 검색은 물론 1,000여종의 전자책과 각종 CD-ROM, DVD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의 원통형 열람실인 ‘별나라’는 우주선을 본 판 둥근 공간으로 이뤄져 마치 우주여행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책을 읽고 난 뒤 자기생각을 글과 그림 등으로 발표, 전시하는 ‘돌아가는 길’과 ‘그림방’, ‘지혜의 다락방’도 마련돼 있다.

이날 도서관 개관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지역 어린이들과 더불어 도서관 내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도서관 건립을 위해 애써온 순천시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대표 도정일), MBC ‘!느낌표(!)’ 제작진등 후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여사는 개관식 축사를 통해 “어린이가 마음껏 책을 읽을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값진 투자”라며 “이번 순천 어린이 전용 ‘기적의 도서관’ 개관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 제2, 제3의 ‘기적의 도서관’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적의 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린이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매주 일요일은 휴관한다. 그러나 현재 개관 시간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가 많다고 한다. 도서관 개관 시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서관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리·사진 : 심효정, shjcap@hitel.net〕

